Analyst: Yuanta Research (중국)
+86 21 6187 3832 / research@yuanta.com
번역: Yuanta Research (한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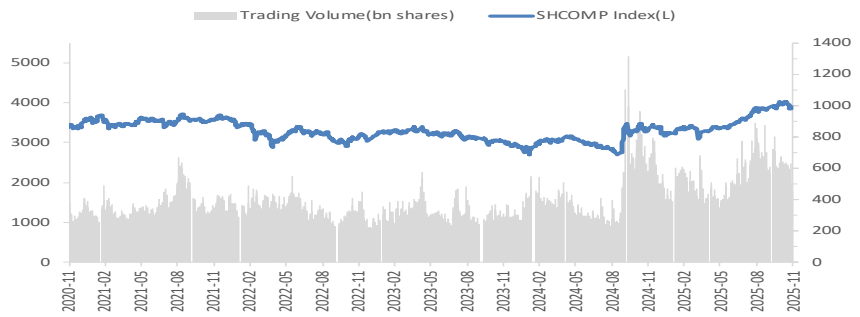
11월 다수 분야에서 우호적 정책 집중 도입,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 대기

11월 A 주 시장은 등락을 거듭하며 변동성 있는 조정을 보였다. 11월 28일 기준 상해종합지수는 3,888.60pt 로 마감해 월간 0.34% 소폭 상승했고, 선전성분지수와 창업판지수는 각각 0.85%, 0.25% 상승했다. 11월 주식형 자금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RMB2.31조(전월대비 -10.22%/전년대비 +7.83%)였다. 신용거래 잔고는 RMB2.46~2.49조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, 11월 20일 기준 RMB2.49조(전년대비 +35.29%)에 달했다.

거시정책은 산업 업그레이드와 시장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. 공업정보화부는 신에너지차(NEV) 구매세 감면을 2027년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고, 교육부는 초중등학교에서 AI 교육 보급 확대를 추진했다. 이 외에도 여러 산업을 대상으로 우호적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었다.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(CSRC)는 외국인 투자 편의성을 더욱 높이고 자본시장 안정화 메커니즘을 강화했다. 증권사 합병·재편도 주목받고 있다. CICC 는 통합자산 규모가 RMB1조 이상인 둥싱증권, 신다증권과 주식스왑 합병을 계획하고 있어 업종 내 자원 배분 최적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.

앞으로 12월에는 올해의 마지막 FOMC 와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릴 예정이다. 시장 위험선호도의 점진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으며, A 주 시장은 연말연시 랠리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된다. 투자자들은 다음 두 가지에 주목할 것이 권고된다. 첫째는 과학기술 발전으로 CPO/광학 모듈, 상업용 항공우주, 반도체, AI 어플리케이션 등을 주목할 만하다. 둘째는 정책 민감 섹터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있는 신질생산능력, 서비스 소비, 주요 인프라 관련 분야인 에너지 저장, 로봇, 노인 돌봄 제품들을 꼽을 수 있다.

상해종합지수 수익률



주: 발간일 2025.12.03

자료: Bloomberg, Yuanta Investment Consulting